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기상사업자와 함께하는 기상서비스

보도자료 Press Release

전주기상지청 Jeonju Branch Office of Meteorology

배포일시	2015. 7. 23. (목) 10:00 (총 7 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기후서비스과	담 당 자	과장 임 갑 곤	전화번호	063-249-3229

3개월 전망(2015년 8월~10월)

기온은 대체로 평년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겠음
8월에는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으나, 9월과 10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이 많겠음

1. 날씨 전망

○ (8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때가 많겠음.** 대기불안정과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 (9월)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며,**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10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 3개월(2015년 8월～10월) 전망 요약 】

요소 / 기간	평균기온				강수량			
	평년 (℃)	확률(%) 낮음	비슷	높음	평년 (mm)	확률(%) 적음	비슷	많음
8월	25.9	35	40	25	266.0	20	45	35
9월	21.2	50	30	20	145.2	50	30	20
10월	14.8	35	40	25	53.1	30	45	25

○ **(엘니뇨/라니냐 전망)** 현재 엘니뇨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 예보기간동안 계속 발달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해수면온도 편차 : 6월 +1.5℃, 7월 12~18일 +1.8℃

※ 엘니뇨 정의 : 엘니뇨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 3.4 지역 : 5°S~5°N, 170°W~120°W)에서 5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4℃이상으로 나타나는 달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의 시작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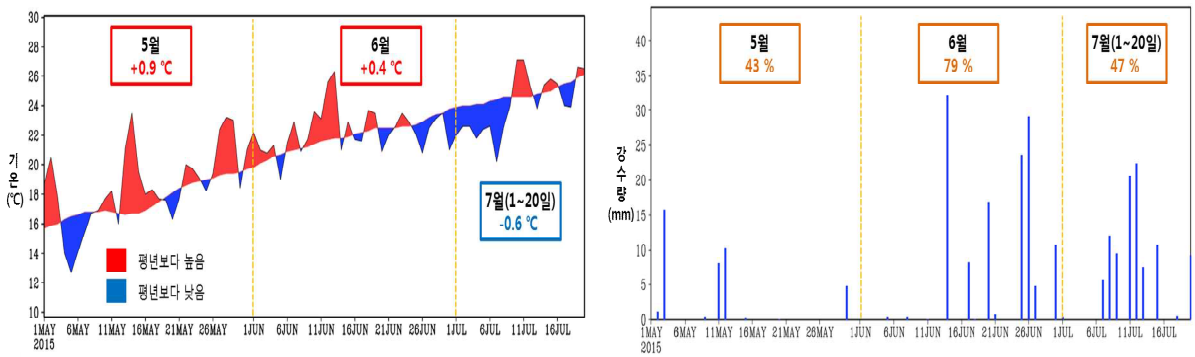
2. 최근 날씨 동향

○ **(5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낮에는 강한 일사와 함께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어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음. **2~3일**에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으며, **11~12일**에는 서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음. **30일**에는 제주도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음. **기온은 18.5℃**로 평년(17.6℃)보다 높았으며(**평년편차 +0.9℃**), **강수량은 40.6㎜**로 평년(94.5㎜)보다 적었음(**평년대비 43%**).

○ **(6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는 가운데 남서풍의 유입과 일사로 인해 낮 기온이 크게 올랐으며, 대기가 불안정하여 내륙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자주 내렸음. **5일**에는 우리나라 북쪽과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으며, **8일**에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음. **11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약하게 비가 내렸으며, **17~18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지역에 소나기가 내렸음. **20일**에는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음.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5~26일**, **30일**에는 비가 내렸음. **기온은 22.3℃**로 평년(21.9℃)보다 높았으며(**평년편차 +0.4℃**), **강수량은 126.7㎜**로 평년(161.3㎜)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79%**).

○ **(7월 1~20일)**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음. 저기압 및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 비 또는 소나기가 자주 내렸으며, 7~9일에는 북상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음. 11~13일에는 제9호 태풍 '찬홈(CHAN-HOM)'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렸음. **기온은 24.1℃로 평년(24.7℃)보다 낮았으며**(**평년편차 -0.6℃**), **강수량은 98.8㎜로 평년(213.1㎜)보다 적었음**(**평년대비 47%**).

○ (최근 3개월, 2015.5.1~2015.7.20) 평균기온은 21.3 ℃로 평년(21.0 ℃)보다 0.3 ℃ 높았으며, 강수량은 266.1 ㎜로 평년(468.8 ㎜)대비 57 %로 적었음.



최근 3개월 평균기온(좌)과 강수량(우)의 일변화 (2015.5.1.～2015.7.20)
※ 전주, 부안, 정읍 3지점의 평균값

※ 첨부 1 :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 (8월～10월)
※ 첨부 2 : 최근 10년간의 특이 기상 (8월～10월)

【 알림 】
○ 1,3개월 전망은 "기상청 홈페이지→날씨→특보·예보→장기예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3개월 전망은 2015년 8월 23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월별 평균기온 및 강수량 평년값과 평년 비슷 범위 기준표[전북]

기간 / 요소	8월		9월		10월	
	평년	평년 비슷 범위	평년	평년 비슷 범위	평년	평년 비슷 범위
평균기온	25.9 ℃	-0.4 ~ 0.4 ℃	21.2 ℃	-0.4 ~ 0.4 ℃	14.8 ℃	-0.4 ~ 0.4 ℃
강수량	266.0 ㎜	90 ~ 110 %	145.2 ㎜	70 ~ 130 %	53.1 ㎜	75 ~ 125 %

※ 확률예보 해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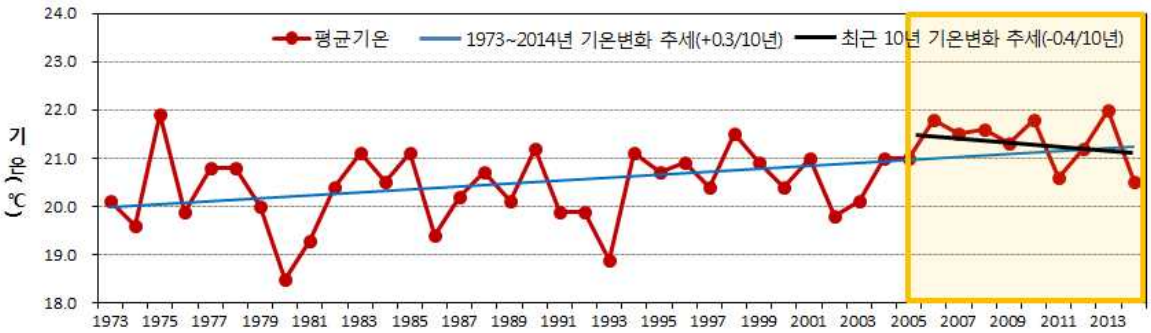
확률예보 값			해석
평년보다 낮음(적음)	평년과 비슷	평년보다 높음(많음)	
10	30	60	평년보다 높음(많음)
20	30	50	
20	35	45	평년보다 높거나(많거나) 비슷
25	35	40	
25	40	35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음(많음)
30	30	40	평년과 비슷
30	40	30	
25	50	25	
40	30	30	
35	40	25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음(적음)
40	35	25	평년보다 낮거나(적거나) 비슷
45	35	20	
50	30	20	평년보다 낮음(적음)
60	30	10	

- 3분위 중 어느 하나가 50% 이상이면, 하나로 발표
- 3분위 중 50% 이상이 없으면, 35% 이상인 것을 모두 발표
  (단, 하위 2개가 동률일 경우(40:30:30)에는 '평년과 비슷'으로 발표)

[첨부 1]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 (8월 ~ 10월)

○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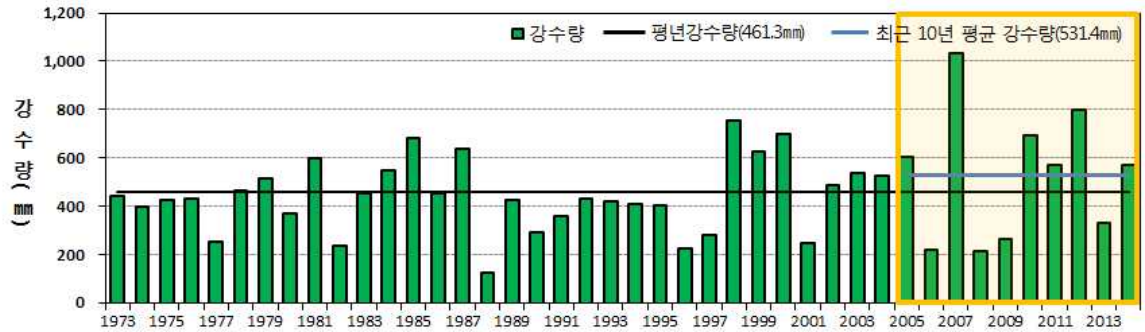
– 최근 10년(2005~2014) 평균기온은 21.3℃로 평년(20.7℃)보다 0.6℃ 높았음.



연도별(1973-2014년) 평균기온(8월 ~ 10월)

○ 강수량

– 최근 10년 평균강수량은 531.4 ㎜로 평년(461.3 ㎜)대비 115 %를 기록하였음.



연도별(1973-2014년) 강수량(8월 ~ 10월)

○ 월별 최근 10년 평균 기후값

기후 요소	단위	8월	9월	10월
평균기온(평년편차)	℃	26.5(+0.6)	21.9(+0.7)	15.6(+0.8)
평균 최고 / 최저 기온	℃	31.3 / 23.0	27.2 / 17.7	22.0 / 10.2
강수량 / 강수일수	㎜ / 일	352.1 / 15.3	139.4 / 10.1	39.9 / 5.7
일조시간	시간	159.1	167.0	202.0
폭염 일수(일최고기온 33℃ 이상)	일	10.3	0.7	0.0
열대야 일수(밤최저기온 25℃ 이상)	일	6.7	0.2	0.0
일강수량 80mm 이상 일수	일	1.1	0.3	0.0
일교차 10℃ 이상 일수	일	8.4	14.3	22.3

* 기후요소는 전주, 부안, 정읍 3개 지점 평균임.
* 평년기간 : 1981~2010년

[첨부 2]	최근 10년간의 특이기상 (8월 ~ 10월)

○ 고온현상

- (2013년 8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어 전국에 걸쳐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자주 나타나 평균기온 및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 : 평균기온 +2.3, 평균 최고기온 +2.6). 가축이 폐사하고, 천여 명의 온열질환자 중 14명이 사망하였음.
- (2010년 8월 1일~9월 20일) 평년보다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평균기온과 평균 최고 및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 : 평균기온 +2.3, 평균 최고기온 +2.1, 평균 최저기온 +3.0).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으나, 해수욕장 및 여름상품의 매출은 호황을 이루었음.
- (2008년 9월 7일~24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평균기온과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 : 평균기온 +3.3, 평균 최고기온 +4.0),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이 나타났으며, 쌀, 배 등 아열대성 작물은 유례없는 풍작이었으나, 농작물 값이 하락하여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6년 10월) 동서고압대의 영향을 주로 받으면서 평균기온과 평균 최고 및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 : 평균기온 +2.8, 평균 최고기온 +3.4, 평균 최저기온 +2.7). 높은 기온 탓에 가을 의류의 판매가 부진하고, 모기떼가 극성을 부렸음.

○ 저온현상

- (2014년 8월) 전반에는 두 차례의 태풍 영향, 후반에는 상공에 찬 공기가 유입된 가운데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으며,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네 번째로 낮았음(편차(℃) : 평균 최고기온 -2.4[1위 1993년 -3.7]).
- (2006년 9월 5~18일) 상층 한기의 유입으로 쌀쌀한 날이 지속되어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낮았음(편차(℃) : 평균 최고기온 -2.8[1위 2000년 -3.9]).

○ 많은 비

- (2014년 10월 20~22일) 우리나라 북서쪽과 일본 남쪽에 위치한 성질이 다른 두 고기압사이에 형성된 수렴대와 중국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10월 일강수량 극값을 기록한 곳도 있었음(**10월 일강수량(㎜) 극값 1위 : 21일** 전주 36.0, 정읍 59.0, 군산 33.8, 장수 36.5, 남원 24.5, 임실 39.0, 부안24.0).

- (2014년 9월 23~24일) 제16호 태풍 '풍웡'이 중국 동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후 강한 바람과 함께 다량의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많은 비가 내렸음(**9월 일강수량(㎜) 극값** 1위 : **24일** 남원 74.8, 장수 84.5).
- (2014년 8월) 중순부터 연해주 부근에 상층 기압능이 발달하여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였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수렴되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자주 내려, 강수일수가 1973년 이래 다섯 번째로 많았음(**8월 강수일수(일)** : 18.0[1위 2010년 21.3] / **8월 일강수량(㎜) 극값** : **18일** 정읍 159.0[**4위**, 1위 2011. 08.09. 420.0]).
- (2012년 8월 12~16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많은 비(**일강수량(㎜)** : **13일** 군산 251.8, 부안 144.0, 장수 127.5)가 내려 1명이 사망하고, 287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0년 8월 13~18일)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전북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음(**누적강수량(㎜)** : 장수 485.5, 임실 419.1, 정읍 346.5, 전주 319.5 등). 1명이 사망하고, 하천·농경지가 매몰되거나 유실되었으며, 851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태풍**

- (2012년 8~9월) 제15호 태풍 '볼라벤'(8월 28일)과 14호 태풍 '덴빈'(8월 30일), 제16호 태풍 '산바'(9월 17일)의 상륙으로 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연이어 상륙한 최초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음(**최대순간풍속(㎧) [8월 극값 1위]** : **28일** 군산 39.7 / 누적강수량(㎜) : **8월 27~30일** 정읍 277.2).
- (2011년 8월 6~10일) 제9호 태풍 '무이파'가 서해로 북상하면서 전남 해안지역에 강풍으로 인해 방파제·선착장 등 어항시설에 피해가 컸으며,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8월 일강수량(㎜) 극값 1위** : **9일** 정읍 420.0, 임실 234.0). 1명이 사망하였고, 주택침수 등 2천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0년 9월 1~2일) 제7호 태풍 '곤파스'가 서해상에 상륙하여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관측 이래 최대순간풍속 극값을 기록한 곳이 있음(9월 **최대순간풍속(㎧)** : 2일 부안 19.5**[1위],** 전주 17.4[2위, 1위 1981.09.02. 23.3], 정읍 16.1[2위, 1위 1998.09.30. 16.7]). 6명이 사망하고, 167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